

경제 동향

■ 요약

■ 경기 생산/재고/소비/외국인투자

■ 고용 취업자/실업자/물가

■ 금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가격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제조업생산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중 서울의 제조업생산은 지난해 5월 대비 21.4% 증가하고, 생산자 제품재고도 지난해 5월 대비 3.5% 증가하여 의도된 재고 증가의 양상을 나타냄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중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백화점 14.1%, 대형할인점 7.6%)은 지난해 5월 대비 11.4%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p>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취업자 수 지난해 6월과 거의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중 서울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 대비 0.04%(2천명) 증가한 4,937천명으로 지난해 6월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의 취업자 수 증가율(1.1%)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함 ○ 서울의 실업률 소폭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중 서울의 실업률은 4.1%로 지난해 6월 대비 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2006년 들어 2개월 연속 가장 낮은 실업률을 유지함 ○ 서울의 소비자 물가 미미한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중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5월 대비 0.1% 하락하여 2006년 들어 처음으로 하락세로 반전됨
<p>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채 유통수익률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중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고유가 지속 및 환율 하락 등에 따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정책금리 인상, 외국인 국제선물 순매도 증가 등의 영향으로 6월말 현재 지난 5월말 대비 0.20%p 상승한 4.92%를 기록함 ○ KOSPI 지난 5월말 대비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중 KOSPI 지수는 6월초 주요국 주가 약세, 외국인 순매도 지속, IT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으나, 6월 말경 상당폭 반등하여 지난 5월말 대비 1.71% 하락한 1,295.15로 마감함 ○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중 원/달러 환율은 미국 달러화 약세, 역외거래자의 달러화 매도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 등에 기인하여 급락세가 진정되면서 6월말 현재 지난 5월 대비 2.8원 상승한 948.90원으로 마감함 ○ 서울의 신설법인 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중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지난 5월 보다 2.2%(36개) 많은 1,691개로 전국대비 40.3%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 중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신설됨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감소 및 건설수주액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중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5월 대비 18.9% 감소하였으며,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5월 대비 15.5% 증가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상승폭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중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보다 0.8%p 하락한 0.7%이며, 이 중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보다 1.4%p 하락한 0.6%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둔화됨 - 6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보다 0.3%p 하락한 0.2%이며, 강남북 상승률(0.2%) 격차는 보이지 않음

| 생 · 산 |

서울 제조업 부문 산업생산 2개월 연속 큰 폭 증가

■ 전국 산업생산 지난해 5월 대비 증가

- 2006년 5월중 전국의 산업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5월 대비 11.6% 증가함
- 부문별로 반도체·IT 부문의 생산이 2005년 3/4분기 이후 20%대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생산의 호조를 주도한 반면,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부문의 생산은 증가세가 둔화됨

■ 서울 제조업 부문 산업생산 2개월 연속 큰 폭 증가

- 2006년 5월중 서울 제조업 부문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5월 대비 21.4%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냄
- 이는 대기업 지방이전에 따라 컴퓨터 및 사무기기(액정모니터), 음식료품(쇼팅) 등에서 감소한 반면, 조립금속, 의복 및 모피,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섬유제품 등에서 증가한 데에 기인함

■ 서울 중공업부문 2개월 연속 큰 폭 증가

- 산업부문별로는 중공업부문은 지난해 5월 대비 64.6%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냄
- 세부업종별로 컴퓨터 및 사무기기(-62.8%) 등이 감소한 반면, 조립금속(1,006.9%),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30.8%) 등이 증가함
- 경공업부문은 지난해 5월 대비 2.7% 증가하여 지난 4월(1.3%)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상승함
- 세부업종별로 음식료품(-34.1%), 인쇄출판(-6.6%) 등이 감소한 반면, 의복 및 모피(15.1%), 섬유제품(15.0%) 등은 증가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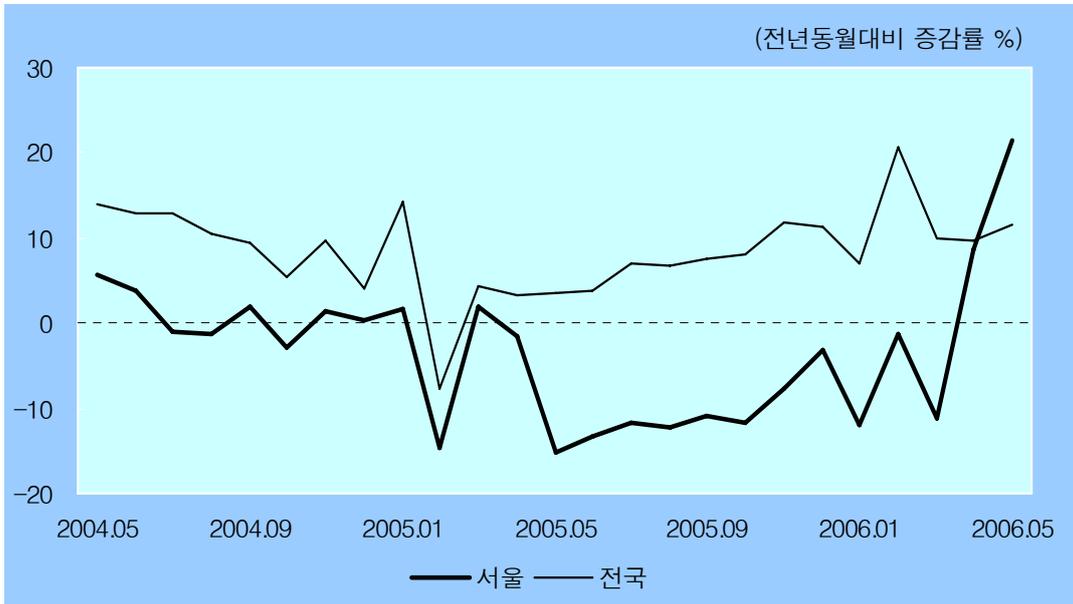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5.5	2006.1	2006.2	2006.3	2006.4p	2006.5p
전 년 동 월 비	전국	3.6 (0.9)	6.9 (6.5)	20.6 (-4.4)	10.0 (0.9)	9.6 (-1.4)	11.6 (1.7)
	서울 (제조업)	-15.1 (-13.2)	-11.9 (-16.4)	-1.3 (-5.9)	-11.3 (18.6)	8.6 (13.6)	21.4 (-3.1)
	중공업	-33.1 (-30.8)	-37.0 (-29.4)	-20.9 (2.6)	-41.5 (14.4)	21.1 (73.2)	64.6 (-6.0)
	경공업	-4.1 (-2.4)	2.5 (-10.7)	9.6 (-8.5)	10.4 (20.3)	1.3 (-9.0)	2.7 (-1.0)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재 · 고 |

서울 제조업 부문 생산자 제품재고 2월부터 감소세 둔화

- 전국 생산자 제품재고 지난 1월 이후 증가세 지속
 - 2006년 5월중 전국의 생산자 제품재고는 지난해 5월 대비 4.8% 증가하여 지난 1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함
 - 재고 증가의 많은 부분이 반도체 재고(37.8%)로, 이는 하반기 이후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비한 업계의 계획된 축적으로 분석됨(반도체 제외 시에는 0.9% 증가)

- 서울 제조업 부문 생산자 제품재고 2개월 연속 증가세
 - 2006년 5월중 서울 제조업 부문의 생산자 제품재고는 지난해 5월 대비 3.5% 증가하며 2006년 1월 이후 감소폭 둔화가 지속됨
 - 이는 제1차금속 등에서 감소한 반면, 음식료품, 섬유제품, 기타 전기기계 등에서 증가한데에 기인함

- 서울 중공업부문 생산자 제품재고 감소 폭 크게 둔화
 -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이 지난해 5월 대비 4.5% 감소하여 지난 4월(-16.3%)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둔화됨
 - 세부업종별로 기타전기기계(21.8%)가 증가한 반면, 제1차금속(-36.9%)은 감소함
 - 경공업부문은 지난해 5월 대비 6.0% 증가하여 지난 4월(10.1%)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됨
 - 세부업종별로 음식료품(25.5%), 섬유제품(15.5%) 등이 증가함

〈표〉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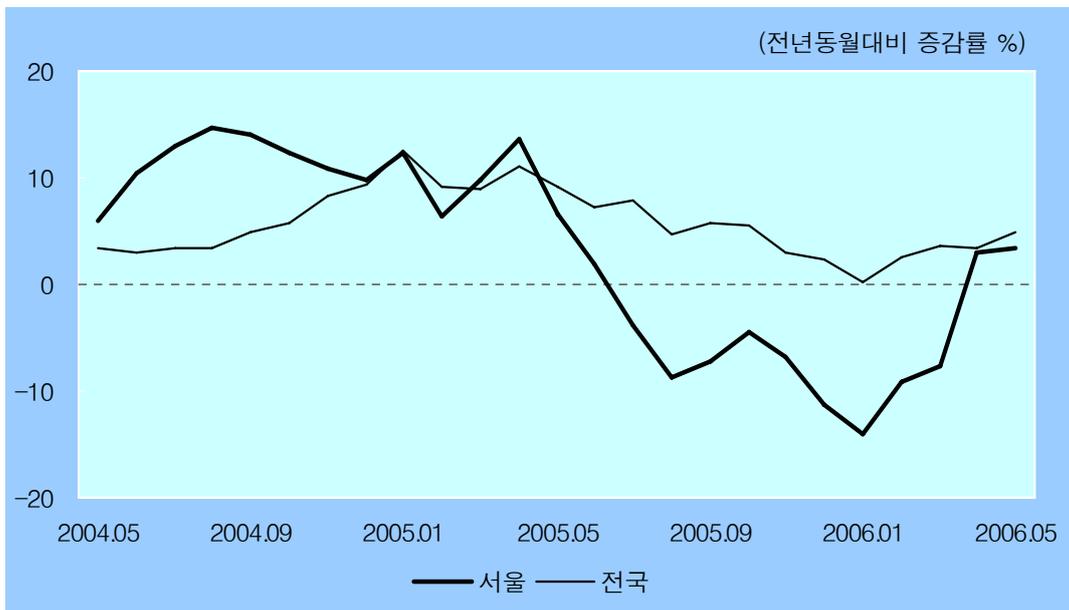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5.5	2006.1	2006.2	2006.3	2006.4p	2006.5p
전 년 동 월 비	전국	9.1 (0.8)	0.2 (0.9)	2.6 (1.0)	3.7 (2.3)	3.5 (0.7)	4.8 (1.9)
	서울 (제조업)	6.7 (0.0)	-14.0 (2.0)	-9.1 (-0.8)	-7.7 (3.1)	2.9 (2.7)	3.5 (0.6)
	중공업	-25.9 (-12.6)	-47.2 (-1.5)	-38.1 (1.5)	-38.1 (-2.3)	-16.3 (1.5)	-4.5 (-0.2)
	경공업	24.0 (4.7)	6.4 (3.1)	6.6 (-1.4)	7.9 (4.7)	10.1 (3.0)	6.0 (0.7)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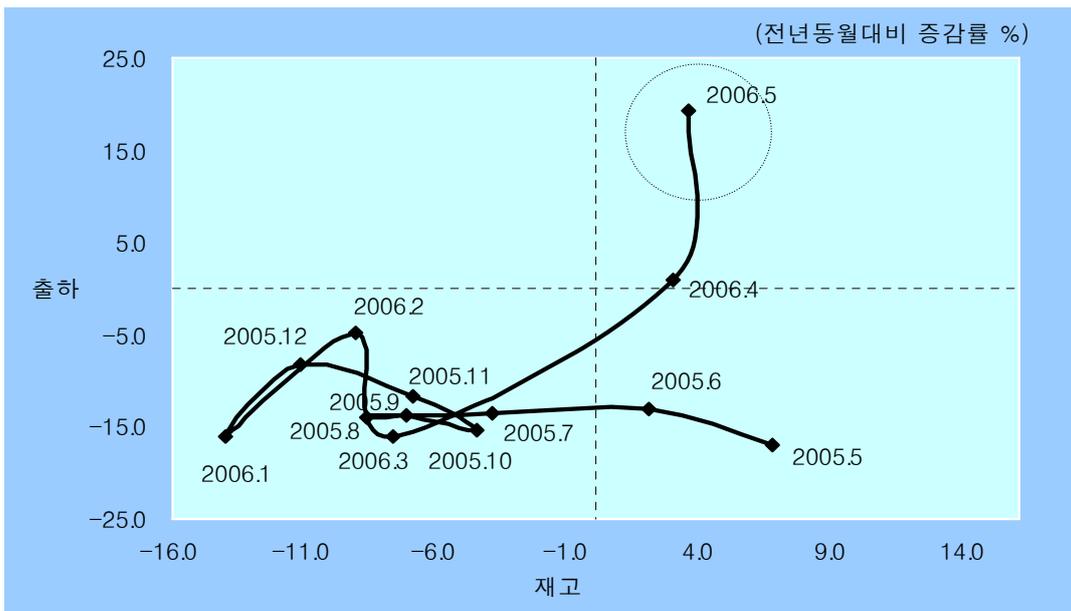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 제조업 부문 의도된 재고증가

■ 서울 제조업 부문 출하, 재고 2개월 연속 증가세

- 2006년 5월중 서울 제조업 출하와 재고를 중심으로 한 경기 순환 분석 결과 출하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의도된 재고 증가의 양상을 나타냄
- 서울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는 지난해 5월 대비 19.2% 증가하여 2005년 1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것이 2개월 연속 증가세로 나타나고, 생산자제품 재고도 지난해 5월 대비 3.5% 증가하여 2005년 6월 이후 감소세가 2개월 연속 증가세로 나타남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 부문의 5월 재고율 증가, 중공업 부문 재고율 감소

- 2006년 5월중 전국의 재고율은 97.2%로 지난해 12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함
- 2006년 5월중 서울 제조업 부문의 재고율은 135.4%로 지난 4월 대비 4.2%p 상승함
- 산업부문별로 서울 중공업부문의 재고율은 78.1%로 2개월 연속 100%을 하회하는데 이는 2개월 연속 출하가 큰 폭 증가한데에 기인함
- 경공업부문의 재고율은 172.1%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며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재고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됨

<표>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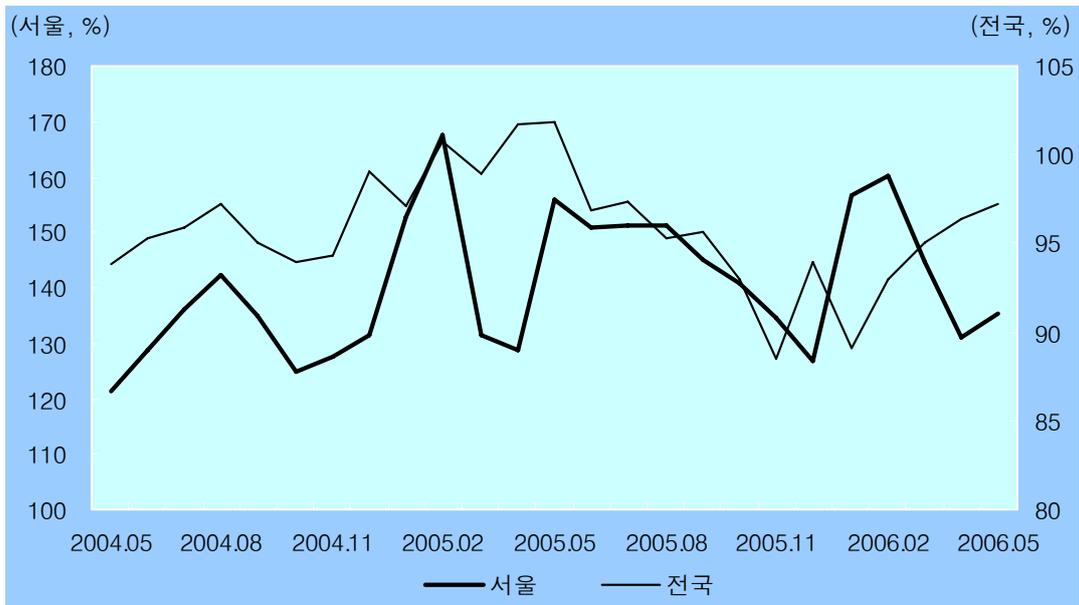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5.5	2006.1	2006.2	2006.3	2006.4p	2006.5p
재고율	전국	101.8	89.1	93.0	95.1	96.4	97.2
	서울 (제조업)	156.0	156.6	160.0	144.7	131.2	135.4
	중공업	127.4	147.2	137.0	122.9	75.1	78.0
	경공업	167.1	158.0	167.8	151.6	167.9	172.1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외 · 국 · 인 · 투 · 자 |

서울의 외국인 투자 지난해 2/4분기 대비 257.8% 증가

■ 2006년 2/4분기 전국의 외국인 투자금액 증가

- 2006년 2/4분기 전국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지난해 2/4분기에 비해 80.3% 증가한 2,707백만 불을 기록함
- 세계적으로 M&A형 투자가 활황을 띠고 있는 가운데 2006년 2/4분기 M&A형 투자는 지난해 2/4분기 대비 500.6% 증가함
- 반면 투자건수에 있어서는 744건으로 지난해 2/4분기에 비해 17.0% 감소함
- 산업별로는 제조업 분야가 9.1%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분야는 크게 증가하여 서비스업의 비중이 78.7%로 증가함

■ 2006년 2/4분기 서울의 외국인 투자금액 증가

- 2006년 2/4분기 서울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지난해 2/4분기에 비해 257.8% 증가한 2,068백만 불을 나타내었으나, 투자건수는 지난해 2/4분기에 비해 25.7% 감소한 281건으로 나타남
- 외국인의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제조업이 각각 92.9%, 4.8%로 나타나 지난해 2/4분기의 75.9%, 22.3%에 비해 서비스업 비중은 큰 폭 증가하고, 제조업 비중은 큰 폭 감소함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지난해 2/4분기에 비해 23.3% 감소한 99백만 불의 투자가 있었으나, 서비스업은 1,921백만 불로 지난해 2/4분기에 비해 338.6%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냄
- 이는 신한금융지주, 우리크레디트스위스등의 자산운용에서 M&A형 투자 증가와 한국의 환은행 등의 증액투자 증가로 금융·보험(1,705.3%)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표〉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불, %)

구분	2005. 2/4			2006. 2/4			증감률		
	건수	금액	금액비율	건수	금액	금액비율	건수	금액	
전체	전국	896	1,501	-	744	2,707	-	-17.0	80.3
	서울	378	578	-	281	2,068	-	-25.7	257.8
제조업		41	129	22.3	31	99	4.8	-24.4	-23.3
서비스업		329	438	75.9	247	1,921	92.9	-24.9	338.6
도·소매(유통)		192	59	10.3	94	28	1.4	-51.0	-52.5
음식·숙박		9	3	0.5	6	3	0.2	-33.3	0.0
운수·창고(물류)		5	1	0.1	19	93	4.5	280.0	9,200.0
통신		2	42	7.3	1	3	0.1	-50.0	-92.9
금융·보험		29	94	16.3	35	1,697	82.1	20.7	1,705.3
부동산·임대		18	41	7.2	10	24	1.1	-44.4	-41.5
비즈니스서비스업		57	109	18.8	70	52	2.5	22.8	-52.3
문화·오락		8	85	14.7	6	19	0.9	-25.0	-77.6
공공·기타서비스		9	5	0.8	6	2	0.1	-33.3	-60.0
기타		8	10	1.8	3	49	2.3	-62.5	390.0

주: 투자금액 및 금액비율은 반올림 수치이며 신고기준임
 자료: 산업자원부, 서울시 금융도시담당관

| 소 · 비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3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

-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지난해 5월 대비 8.7% 증가한 3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남
- 백화점부문에서 가전제품, 의복, 음식료품 등의 판매가 증가하여 지난해 5월 대비 5.2% 증가하고, 대형마트(할인점)에서는 가전제품, 의복 등에서 판매가 늘어 지난해 5월 대비 10.0% 증가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지속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지난해 5월 대비 11.4% 증가한 1조 3천억 원으로 백화점, 대형마트(할인점) 모두 4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백화점부문의 경우 웰빙 열풍으로 인한 운동, 오락용품의 판매증가와 월드컵 특수로 인한 가전제품판매 증가로 인해 지난해 5월 대비 14.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대형마트(할인점)부문의 경우에도 월드컵을 앞두고 가전제품 판매증가와 휴대용 전화기 보조금 정책 실시로 인한 통신기기 판매호조로 지난해 5월 대비 7.6% 증가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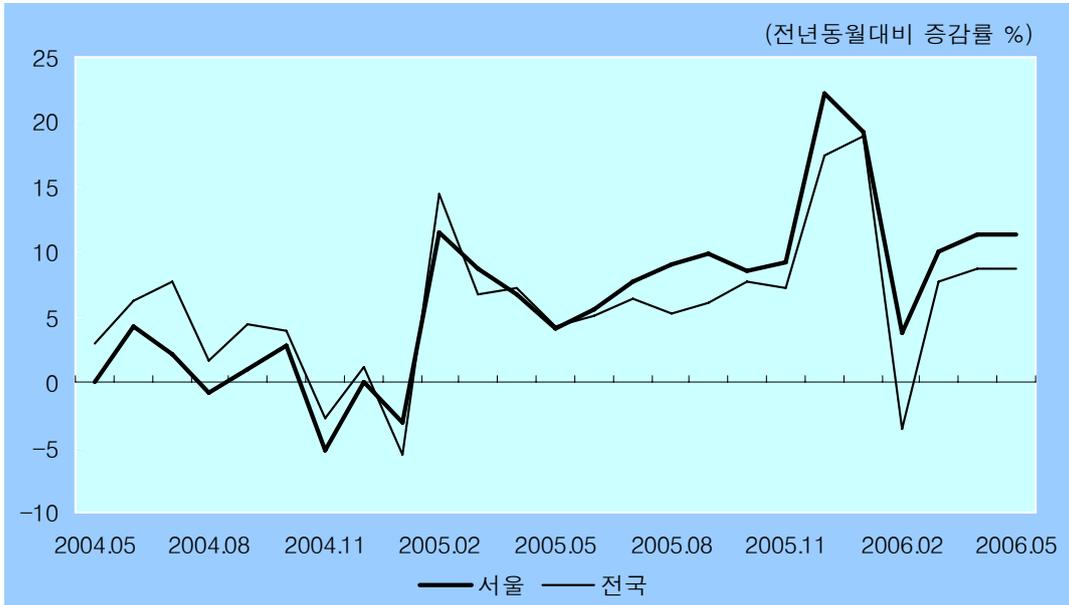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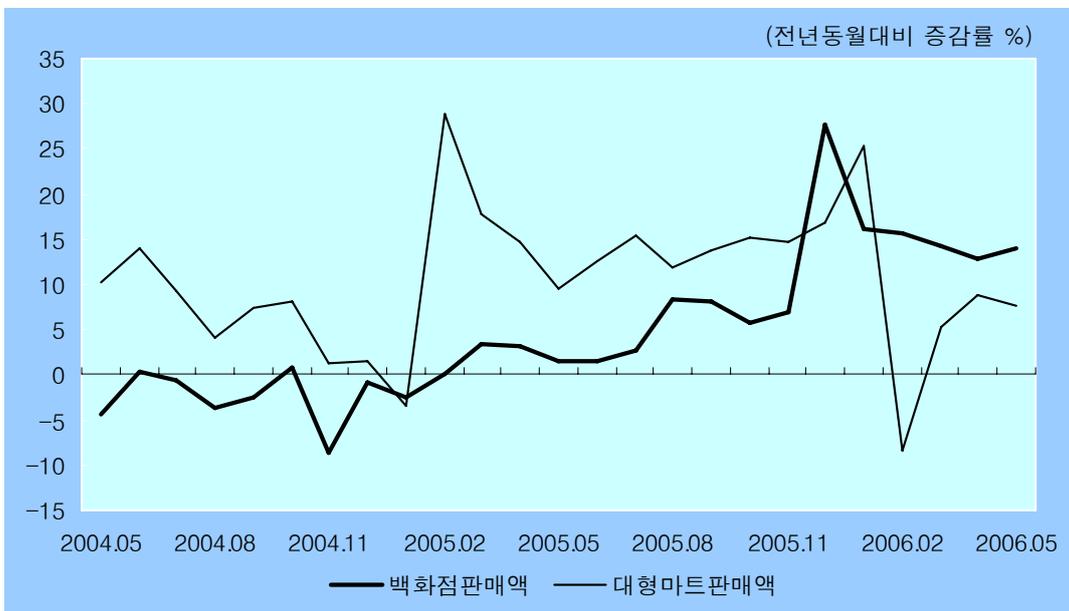
구 분		2005.5	2006.1	2006.2	2006.3	2006.4p	2006.5p
판매액	전국	3,410 (4.3)	3,992 (19.0)	3,233 (-3.6)	3,543 (7.7)	3,669 (8.7)	3,706 (8.7)
	서울	1,124 (4.1)	1,341 (19.3)	1,074 (3.8)	1,214 (10.0)	1,272 (11.3)	1,252 (11.4)
	백화점	634 (1.5)	748 (16.2)	609 (15.6)	703 (14.2)	761 (12.9)	723 (14.1)
	대형마트 (할인점)	461 (9.5)	555 (25.3)	432 (-8.4)	470 (5.2)	479 (8.9)	497 (7.6)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예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취 · 업 · 자 |

서울의 취업자 수 지난해 6월 대비 0.04% 증가

■ 전국의 취업자 수 소폭 증가

- 2006년 6월중 전국의 취업자는 23,051천명으로 지난해 6월 대비 1.1%(255천명)가 증가함
-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 대비 4.9% 감소한 반면에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는 3.9% 증가함

■ 서울의 취업자 수 지난해 6월 대비 0.04% 증가

- 2006년 6월중 서울의 취업자는 4,937천명으로 지난해 6월 대비 0.04%(2천명) 증가함
-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 전국의 취업자 수 증가율에 비해 1.06%p 낮은 수준으로 전국에 비해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57.3%(2,828천명), 여자는 42.7%(2,109천명)로 지난해 6월 대비 남자는 0.4%(-11천명) 감소한 반면에 여자는 0.6%(13천명) 증가함
-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6월에 비해 5.7%(-65천명) 감소한 반면에 고령층 취업자(55세 이상)는 3.2%(22천명) 증가함
-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 5월에 이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월에 비해 1.2%p 더 감소하였으며 전국에 비해서는 0.8%p 더 많이 감소함
- 고령층 취업자는 지난 5월에 이어 꾸준히 증가추세이며 증가폭은 지난 5월에 비해 0.8%p 늘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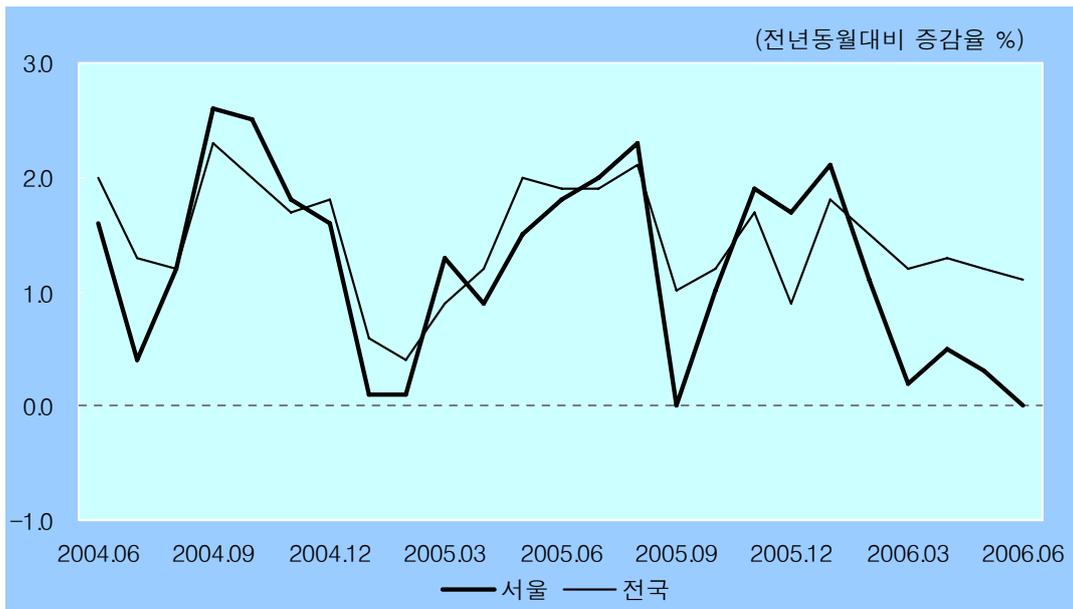
〈표〉 2006년 6월 고용동향

(단위: %)

구 분		2005.6	2006.1	2006.2	2006.3	2006.4	2006.5	2006.6	
취업자	전국	1.9 (0.2)	1.8 (-1.0)	1.5 (-0.3)	1.2 (1.9)	1.3 (1.7)	1.2 (1.0)	1.1 (0.1)	
	서울	1.8 (0.5)	2.1 (-0.8)	1.1 (-0.7)	0.2 (0.4)	0.5 (0.7)	0.3 (0.2)	0.0 (0.2)	
	성별	남자	1.3 (0.0)	0.5 (-1.0)	-0.3 (-0.6)	-0.2 (1.4)	-0.3 (0.0)	0.1 (0.5)	-0.4 (-0.5)
		여자	2.5 (1.1)	4.4 (-0.6)	3.2 (-0.9)	0.7 (-0.9)	1.7 (1.7)	0.6 (-0.2)	0.6 (1.1)
청년층 취업자	전국	-2.5 (-0.5)	-2.6 (1.6)	-4.6 (-2.7)	-4.8 (-1.3)	-4.4 (0.3)	-4.6 (0.7)	-4.9 (-0.8)	
	서울	-2.0 (0.3)	-2.3 (0.8)	-4.6 (-2.1)	-5.7 (-0.9)	-6.4 (-1.2)	-4.5 (0.4)	-5.7 (-1.0)	
고령층 취업자	전국	7.4 (1.2)	3.7 (-3.9)	3.7 (1.0)	4.2 (8.1)	3.1 (4.9)	4.0 (3.3)	3.9 (1.1)	
	서울	6.8 (0.6)	5.6 (-2.5)	4.2 (-0.9)	3.4 (2.6)	1.5 (1.6)	2.4 (0.6)	3.2 (1.4)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서비스 부문 취업자 수 증가

- 2006년 6월중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지난해 6월 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7%) 및 도소매·음식숙박업(1.1%)은 증가하였으나, 제조업(-7.9%), 건설업(-3.7%), 전기·운수·통신·금융업(-0.8%)은 감소함
-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전국적으로 증가(4.0%)한 반면에 서울에서는 감소 경향이 나타남
-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05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 전문·기술·행정관리자 및 서비스·판매종사자 취업자 수 증가

- 2006년 6월중 직업별 취업자는 지난해 6월 대비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2.4%(30천명), 전문·기술·행정관리자는 2.3%(34천명) 증가하였으나,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4.0%(-50천명), 사무종사자는 2.1%(-16천명) 감소함
- 2005년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서비스·판매 종사자 수는 6월에 증가세로 돌아섬

■ 서울의 비임금근로자 수 증가

- 2006년 6월중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는 비임금근로자 1,371천명, 임금근로자 3,566천명으로 지난해 6월 대비 비임금근로자는 0.2%(3천명)가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0.1%(-2천명) 감소함
- 전체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27.8%, 임금근로자는 72.2%로 지난 5월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2%p 증가하였으며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2%p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1.1%(13천명) 증가하였고, 이 중 자영자가 2.2% 증가한 반면에 무급가족종사자는 4.7%(-10천명) 감소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0%(49천명)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3.5%(-48천명), 일용근로자는 0.4%(-2천명)가 감소함에 따라 임금근로자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표〉 2006년 6월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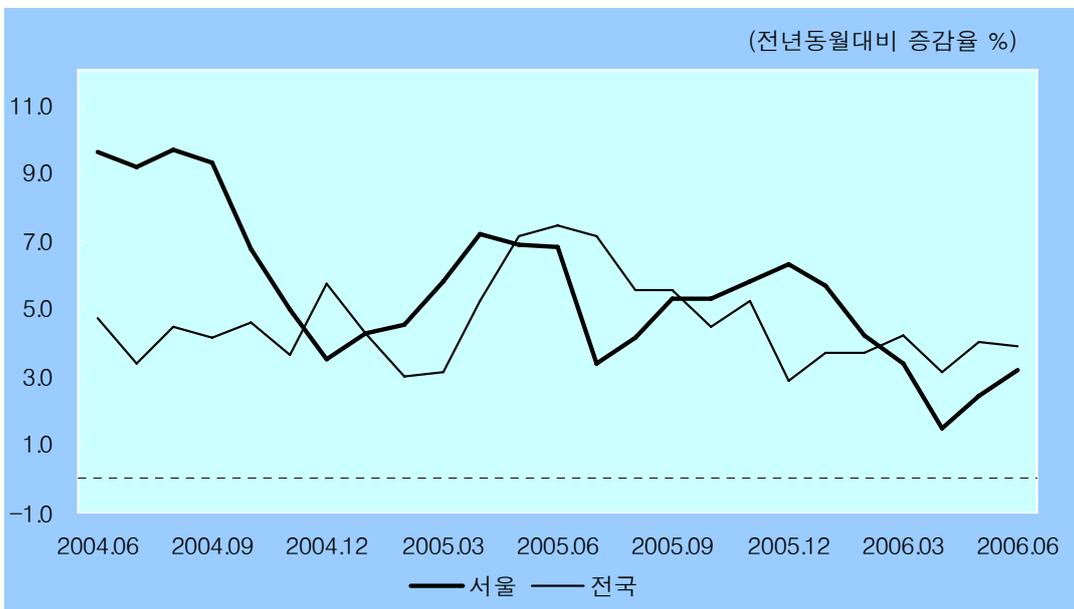
구 분		2005.6	2006.1	2006.2	2006.3	2006.4	2006.5	2006.6
산업별 취업자	광공업	-0.6 (0.1)	-4.0 (-1.8)	-3.4 (1.2)	-4.6 (2.0)	-7.0 (-3.1)	-5.4 (0.4)	-7.9 (-2.5)
	· 제조업	-0.6 (0.1)	-4.0 (-1.8)	-3.4 (1.2)	-4.6 (2.0)	-7.0 (-3.1)	-5.4 (0.4)	-7.9 (-2.5)
	SOC 및 기타서비스업	2.3 (0.5)	3.2 (-0.6)	2.0 (-1.1)	1.0 (0.2)	2.0 (1.4)	1.4 (0.2)	1.4 (0.6)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4.4 (0.0)	6.3 (-1.2)	4.4 (-0.5)	3.5 (0.4)	4.8 (2.1)	2.3 (-0.9)	3.7 (1.4)
	· 도소매·음식숙박	-1.0 (0.9)	0.0 (-0.9)	-0.6 (-1.2)	-1.7 (-0.8)	-0.4 (0.0)	0.4 (0.8)	1.1 (1.7)
	· 전기·운수·통신·금융	1.7 (0.1)	2.4 (1.3)	0.6 (-1.8)	-1.8 (-2.1)	-1.6 (0.8)	1.4 (2.3)	-0.8 (-2.1)
	· 건설업	5.7 (1.8)	3.4 (0.4)	2.7 (-2.0)	4.1 (5.7)	2.9 (3.4)	0.8 (-0.1)	-3.7 (-2.8)
	직업별 취업자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4 (0.9)	0.7 (-1.0)	-0.7 (-0.4)	1.5 (2.1)	4.4 (1.8)	3.5 (-0.5)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6.0 (1.4)	2.3 (-0.9)	2.0 (-0.9)	-0.1 (2.2)	2.0 (2.5)	2.1 (0.9)	-3.4 (-4.0)	
서비스·판매종사자	0.6 (0.1)	-0.1 (-0.3)	-0.7 (-0.7)	-2.0 (-1.2)	-3.7 (-1.4)	-5.2 (-1.3)	2.4 (8.2)	
사무종사자	-4.3 (-1.4)	8.0 (-1.1)	5.9 (-1.1)	1.7 (-2.9)	-2.5 (-1.3)	0.2 (2.8)	-2.1 (-3.7)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39.3 (-2.6)	60.7 (-29.7)	63.0 (-2.2)	33.3 (-18.2)	37.8 (41.7)	13.2 (-15.7)	81.1 (55.8)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3.6 (0.5)	3.3 (-0.8)	2.9 (-0.6)	2.4 (1.0)	1.6 (0.8)	1.8 (0.9)	-0.1 (-1.4)
	비임금근로자	-2.6 (0.4)	-0.8 (-1.0)	-3.2 (-1.2)	-5.2 (-1.0)	-2.1 (0.5)	-3.7 (-1.6)	0.2 (4.5)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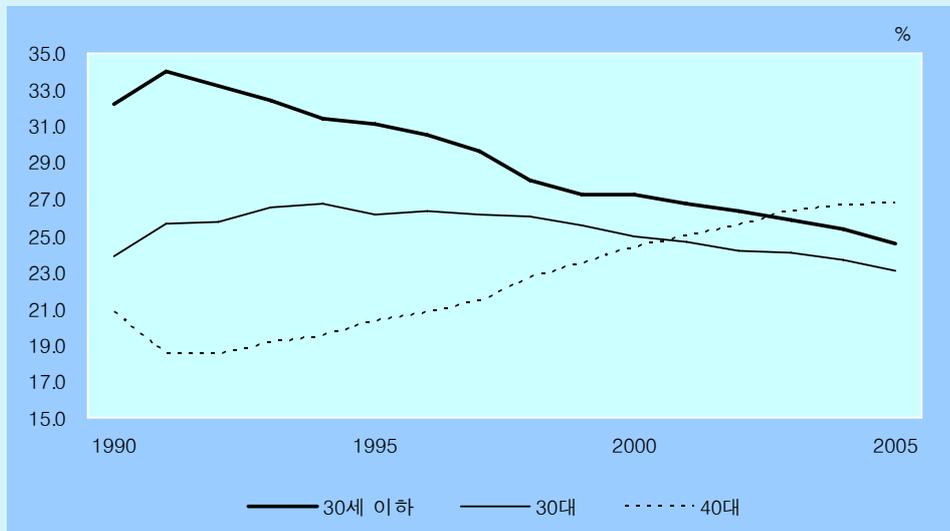
〈Box〉 연령별 여성 취업률의 변화 (1990년-2005년)

▶ 여성취업자의 지속적인 증가

- 통계청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여성취업자를 15세 이상 여성 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여성 고용률은 49.8%로 일년 전과 비교하여 0.5%p 높아진 반면에 남성 고용률은 72.1%로 0.4%p 감소함
- 여성고용률이 50% 가까운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OECD 회원국 평균 고용률(2004년 기준 55.8%)보다는 낮은 수준임

▶ 연령별 여성 취업률

- 연령별로 여성 취업률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여성 취업자 중 30세 이하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40대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
- 전체 취업자 중 30세 이하의 비중은 32.3%(1990년)→31.1%(1995년)→27.2%(2000년)→24.6%(2005년)로 줄어들고 있고, 30대 역시 23.8%(1990)→26.1%(1995)→24.9%(2000)→23.1%(2005)로 줄어들고 있으며, 40대는 20.7%(1990)→20.2%(1995)→24.3%(2000)→26.7%(2005)로 늘어나고 있음
-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는 20, 30대에 잠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여성 취업자가 재취업하는데 더 용이해지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됨
- 반면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하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이유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잠시 중단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그림〉 여성취업자의 연령별 비중의 변화

자료: 통계청

| 실 · 업 · 률 |

서울의 실업률 소폭 하락

■ 전국 실업률 소폭 하락

- 2006년 6월중 전국의 실업률은 3.4%로 지난해 6월 대비 0.2%p 하락하였으며 2006년 2월 이후 전반적으로 실업률 하락세가 지속됨

■ 서울 실업률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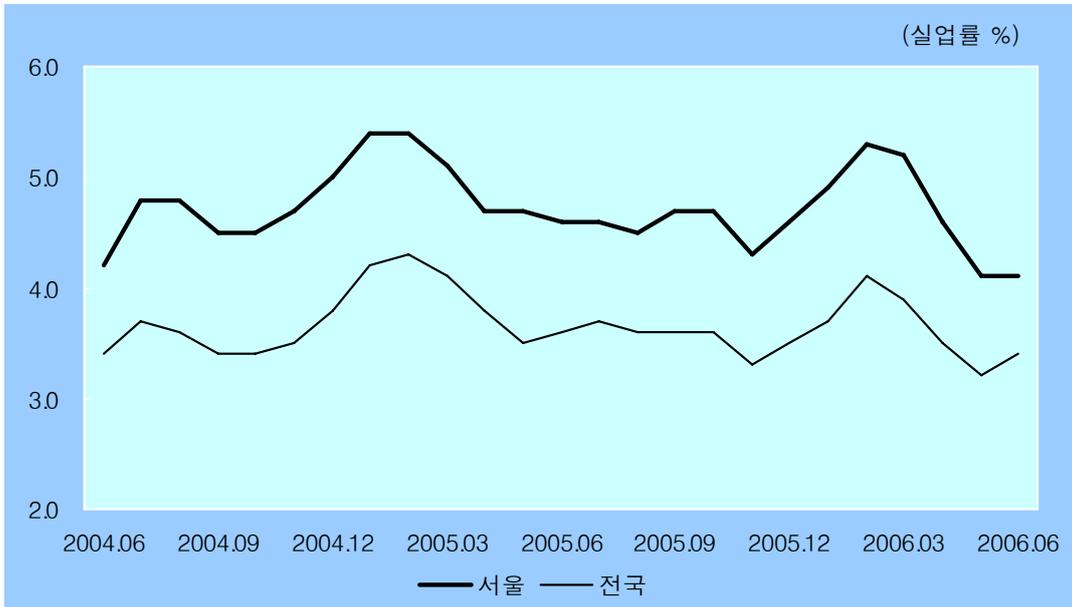
- 2006년 6월중 실업률은 4.1%(실업자는 210천명)로 지난해 6월 대비 0.5%p(실업자는 -1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5월에 이어 동일한 실업률을 유지함
- 서울의 실업률은 전국의 실업률(3.4%)을 0.7%p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과의 실업률 차가 지난 3개월(3월:1.3%p, 4월:1.1%p, 5월:0.9%p) 연속 줄어들고 있어 고용개선의 여지가 있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실업률은 4.3%로 지난해 6월 대비 0.3%p(실업자 증감률 -6.2%) 감소하였으며, 여자의 실업률은 3.8%로 지난해 6월 대비 0.8%p(실업자 증감률 -17.9%) 감소하여 여자가 0.5%p 더 감소함

〈표〉 2006년 6월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5.6	2006.1	2006.2	2006.3	2006.4	2006.5	2006.6
전국		3.6	3.7	4.1	3.9	3.5	3.2	3.4
서울		4.6	4.9	5.3	5.2	4.6	4.1	4.1
성 별	남자	4.6	5.2	5.6	5.4	5.0	4.3	4.3
	여자	4.6	4.5	4.9	4.8	4.0	3.8	3.8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물 · 가 |

서울 소비자 물가 지난 5월 대비 0.1% 하락

■ 전국 소비자 물가 0.2% 하락

- 2006년 6월중 전국 소비자 물가는 지난 5월 대비 0.2% 하락하여 지난달에 비해 0.4%p 하락함
- 지난 4, 5월에 이어 채소류(-12.7%), 과일(-0.8%) 등의 출회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함께 지난 5월에는 상승하였던 유류, 금반지, 컴퓨터 본체 등 공업제품 가격의 하락이 원인으로 분석됨

■ 서울 소비자 물가 0.1% 하락

- 2006년 6월중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5월 대비 0.1% 하락하여 2006년 들어 처음으로 하락세로 반전됨
- 그러나 지난해 6월에도 물가가 하락세임을 감안할 때 이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주거비(0.6%), 가구집기·가사용품(0.3%) 부문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양오락(-1.5%), 금반지 등의 기타 잡비(-1.3%), 식료품(-0.3%), 광열·수도(-0.2%) 부문이 하락됨에 따라 전반적 소비자 물가가 하락함

■ 상품부문 하락, 서비스 부문 상승

- 2006년 6월중 상품부문은 채소류의 출회 증가로 농축수산물은 하락하였으며, 공업제품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함에 따라 지난 5월 대비 0.2% (전국:-0.4%) 하락함
- 2006년 6월중 서비스 부문은 전국이 보합세를 유지한 반면에 서울의 경우 집세 및 개인 서비스 부문이 0.1% 상승함에 따라 지난 4월 대비 0.1% 상승함

■ 서울 생활물가 및 신선식품 하락

- 2006년 6월중 생활물가는 지난 5월 대비 0.2% (전국:-0.2%) 하락하여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필품에서 하락세를 나타냄
- 2006년 6월중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 등의 신선식품은 5.1%(전국:-4.9%)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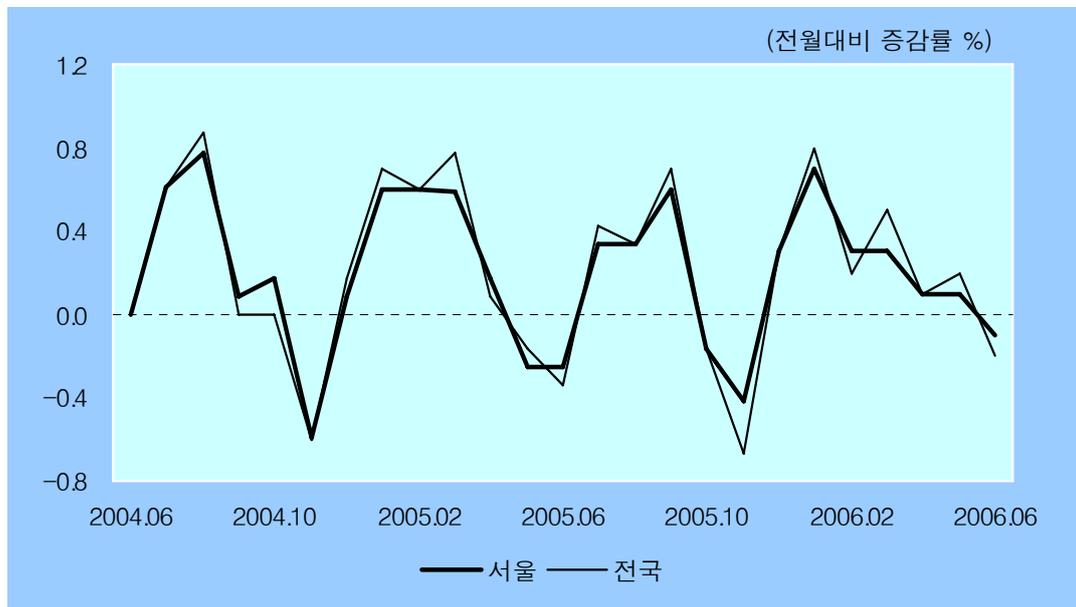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0=100.0, 단위: %)

구 분		2005.6	2006.1	2006.2	2006.3	2006.4	2006.5	2006.6	
전월비	전국	-0.3 (2.7)	0.8 (2.8)	0.2 (2.3)	0.5 (2.0)	0.1 (2.0)	0.2 (2.4)	-0.2 (2.6)	
	서울	-0.3 (2.6)	0.7 (2.5)	0.3 (2.3)	0.3 (2.0)	0.1 (1.9)	0.1 (2.3)	-0.1 (2.4)	
	상품 성질별	상품	-0.8 (3.3)	1.1 (3.5)	0.2 (2.5)	-0.5 (1.5)	0.2 (1.2)	0.1 (1.8)	-0.2 (2.4)
		서비스	0.1 (2.0)	0.5 (1.9)	0.3 (2.1)	0.8 (2.3)	0.1 (2.5)	0.0 (2.4)	0.1 (2.4)
	생활물가	-0.6 (4.3)	1.2 (4.2)	0.4 (3.7)	0.6 (3.1)	0.1 (2.9)	-0.2 (3.2)	-0.2 (3.5)	
	신선식품	-5.9 (5.6)	5.7 (9.3)	0.5 (2.7)	-1.5 (-0.3)	-0.5 (-2.9)	-4.3 (-3.1)	-5.1 (-2.3)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국고채 유통수익률 소폭 상승

■ 국고채 유통수익률 상승

-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고유가 지속 및 환율 평가 절상 등에 따른 경제여건 불확실성 확대 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정책금리 인상,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여 2006년 6월말 현재 4.93%를 기록함
- 회사채 유통수익률도 국고채 수익률의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4.99%(6/1)까지 하락하였 으나, 콜금리 인상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2006년 6월말 현재 5.20%를 기록함
- 2006년 6월중 회사채의 경우 공모발행은 순상환 규모가 지난 5월(-0.1조 원) 보다 확대 (-0.8조 원)된 반면 사모발행은 3.2조 원으로 지난 5월(2.0조 원) 실적을 상회함

■ CD 유통수익률 상승

- CD(91일) 유통수익률은 MMF의 대규모 환매에 따른 CD 매입수요 위축으로 상승하여 2006 년 6월말 현재 4.59%를 기록함
- 2006년 6월말 현재 콜금리(1일)는 4.21%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6월 8일)의 콜금 리 목표 상향조정치인 4.2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장·단기 금리차 축소

- 장·단기 금리차는 정책금리 인상으로 지난 5월말에 비해 축소된 0.71%p를 기록함

■ 6월중 KOSPI 지난 5월말 대비 하락

- 2006년 6월중 KOSPI 지수는 6월초 주요국 주가 약세, 외국인 순매도 지속, IT기업의 실 적 악화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으나, 6월 말경 미국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상당폭 반등하여 5월말 대비 1.71% 감소한 1,295.15로 마감함
- 2006년 6월중 KOSDAQ 지수도 유가 상승 및 환율 하락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 가능성 및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전환 등으로 지난 5월말 대비 6.32% 감소한 590.68로 마감함

■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

- 원/달러 환율은 미국 달러화 약세, 역외거래자의 달러화 매도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 하였으나,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 등에 기인하여 급락세가 진정되면서 2006년 6월말 현재 948.90원을 기록함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6.02	2006.3	2006.4	2006.5	2006.6	2006.07.25	전월비	
금리	국고채(3년)	4.90	4.93	4.81	4.72	4.92	4.87	0.20
	회사채(3년,AA-)	5.34	5.25	5.08	5.00	5.20	5.17	0.20
	CD(91일물)	4.26	4.27	4.36	4.36	4.59	4.64	0.23
	콜금리(1일)	3.99	3.97	3.97	3.96	4.21	4.23	0.25
	장·단기 금리차 ¹⁾	0.91	0.96	0.84	0.76	0.71	0.64	-
주 가	KOSPI ²⁾	1,371.59	1,359.60	1,419.73	1,317.70	1,295.15	1,263.35	-1.71
	KOSDAQ ²⁾	682.36	665.21	685.44	630.50	590.68	548.68	-6.32
환율 (₩/US\$) ²⁾	970.90	971.60	943.40	945.60	948.90	951.70	0.35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 - 콜금리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6월중 은행의 가계대출 지난 5월과 비슷한 폭으로 증가

- 2006년 6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5월과 비슷한 폭으로 증가함
-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5월 3.1조원에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2.2조 원임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민간소비 회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5월중 어린이 날 등 기념일에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결제가 도래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함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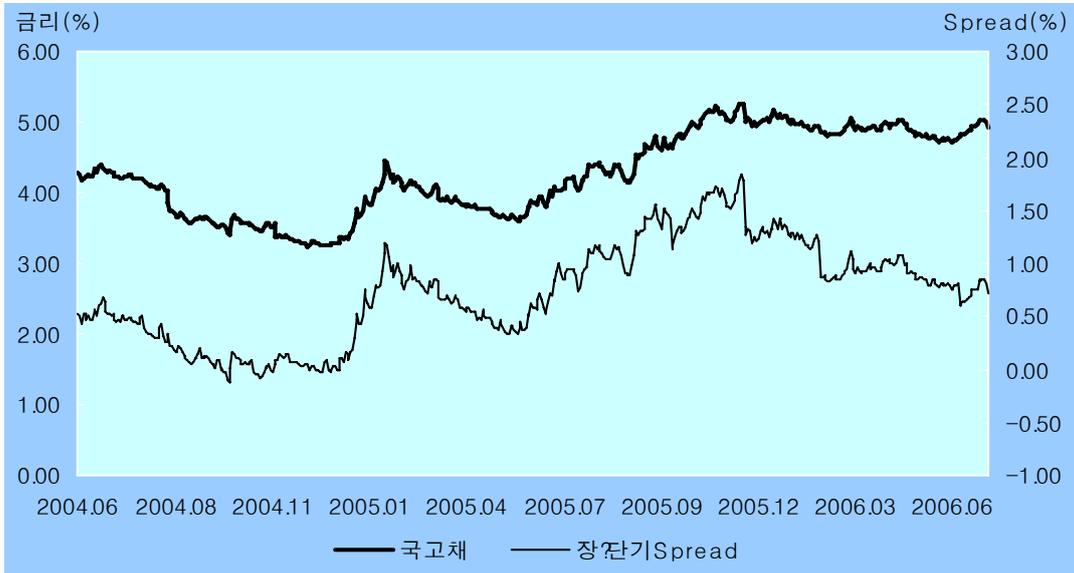
(기간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구 분	2005.06	2006.04	2006.05	2006.06	월말잔액		
					2006.05	2006.06	전월비
가계대출 ¹⁾	4.2	3.6	4.6	4.3	318.0	322.3	1.35
주택담보대출 ²⁾	3.2	3.2	3.1	2.2	198.6	200.8	1.11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0	0.5	1.4	2.2	117.9	120.1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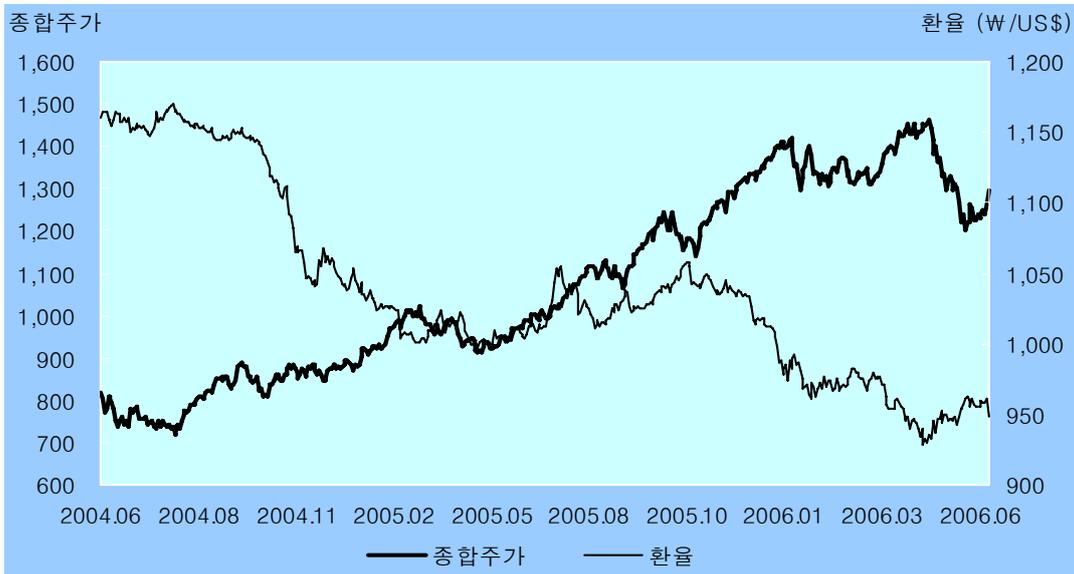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창 · 업 · 동 · 향 |

서울 제조업 부문 신설법인 수 큰 폭 증가

■ 전국 신설법인 수 증가

- 2006년 6월중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지난 5월 대비 4.5%(181개) 증가한 4,201개임
- 업종별로 지난 5월 대비 제조업(37.1%)과 서비스업(1.6%)이 증가하고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사업(-10.8%)은 감소함

■ 서울의 신설법인 수 증가

- 2006년 6월중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지난 5월 대비 2.2%(36개) 증가한 1,691개, 전국대비 비중은 지난 5월(41.2%) 보다 소폭 감소한 40.3%로 나타남
- 업종별로 서비스업과 건설 및 설비업은 지난 5월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제조업은 지난 5월 대비 66.2%로 큰 폭 증가함

■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감소

- 2006년 6월중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지난 5월 대비 2.1% 감소한 1,319개임
- 이는 사업서비스업(-10.9%)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서울의 전체 신설법인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은 지난 5월(81.4%) 보다 감소한 78.0%로 나타남
- 서울의 제조업 신설법인 수는 246개로 지난 5월 대비 큰 폭(66.1%)의 증가를 보이고, 건설 및 설비업은 지난 5월 대비 19.7% 감소하며 감소세로 돌아섬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5.06	2006.3	2006.4	2006.5	2006.6	전월비	
						증감	증감률
전국	4,679	4,915	4,056	4,020	4,201	181 (-478)	4.5 (-10.2)
서울	1,871	1,925	1,618	1,655	1,691	36 (-180)	2.2 (-9.6)
서비스업	1,476	1,550	1,327	1,347	1,319	-28 (-157)	-2.1 (-10.6)
제조업	231	192	137	148	246	98 (15)	66.2 (6.5)
건설 및 설비업	160	180	154	157	126	-31 (-34)	-19.7 (-21.3)

주: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의 어음부도율 8개월 연속 보험세 유지

■ 전국의 어음부도율 7개월 연속 보험세

- 2006년 6월중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7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210개로 지난 5월 보다 21개 증가하며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2005년중 월평균(285개)보다는 적은 수준임
- 업종별로 서비스업(2006년 5월:69개 → 6월:94개)이 크게 증가한 반면, 건설업(2006년 5월:36개 → 6월:31개)과 제조업(2006년 5월:77개 → 6월:74개)은 소폭 감소함

■ 서울의 어음부도율 8개월 연속 같은 수준 유지

- 2006년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8개월 연속 보험세를 유지함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지난 5월 보다 17개 증가한 76개로 전국의 부도업체 수 중 36.2%의 비중을 차지함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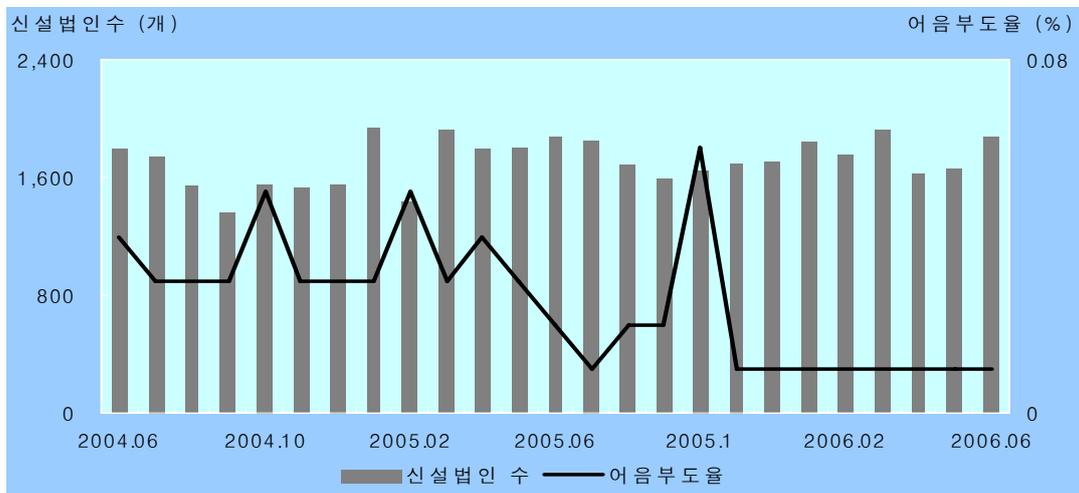
(단위: 개소, %, %p)

구 분	2005.06	2006.03	2006.4	2006.5	2006.6	전월비				
						증감	증감률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4	0.02	0.02	0.02	0.00	(-0.02)	-	-	
	부도업체 수	269	241	235	189	210	21	(-59)	11.1 (-21.9)	
서울	어음부도율	0.02	0.01	0.01	0.01	0.01	0.00	(-0.01)	-	-
	부도업체 수	95	88	79	59	76	17	(-19)	28.8 (-20.0)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신용보증 공급금액 증가추세

■ 2개월 연속 보증공급액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6월중 993건, 28,352백만원으로 지난 5월에 비해 건수 49.1%, 금액 40.5% 증가함
- 이는 지난 4월까지의 지속적인 공급금액 감소추세를 벗어나 2개월 연속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서, 기업들의 자금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p)

구 분	2005.06	2006.02	2005.03	2006.04	2006.05	2006.06	전년동월비	
							증감	증감률
건수	2,001	1,244	946	664	666	993	-1,008 (327)	-50.4 (49.1)
금액	30,748	21,800	21,442	19,005	20,183	28,352	-2,396 (8,169)	-7.8 (40.5)
건당평균금액	15.4	17.5	22.7	28.6	30.3	28.6	13.2 (-1.7)	13.2 (-1.7)

주: ()괄호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제조업 비중의 지속적 증가 및 도·소매업의 감소추세 계속

- 6월의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지난 5월에 이어 제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2.3%p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은 3.8%p 감소하여 2개월 연속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음식·숙박업은 4.5%p 증가함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130	347	244	209	63	993
비율	13.1	34.9	24.6	21.0	6.4	100.0
금액	5,723	9,317	5,459	6,096	1,757	28,352
비율	20.2	32.9	19.2	21.5	6.2	10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비중 증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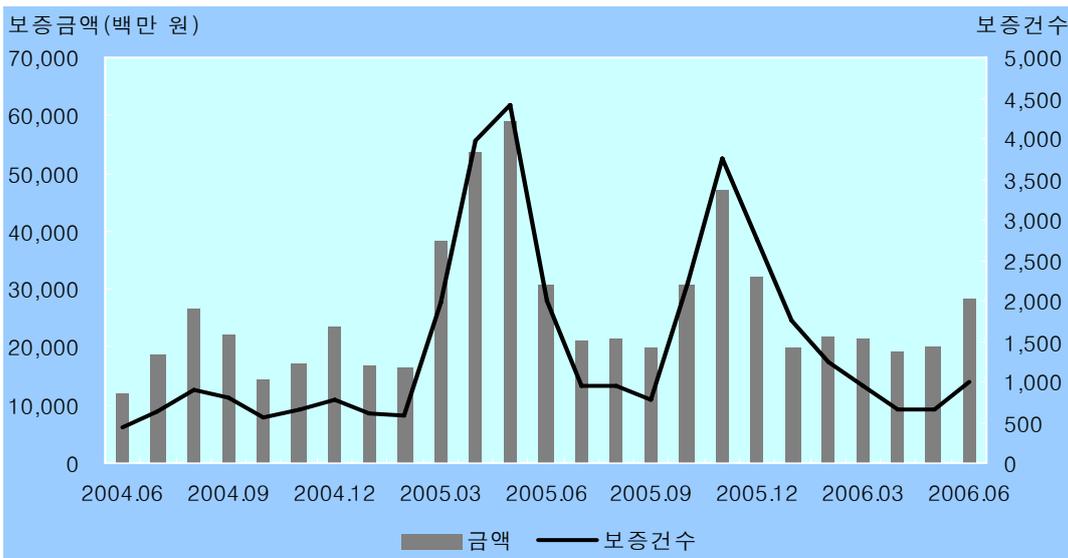
- 6월의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은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음식·숙박업 비중 증가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비중(금액기준)이 2개월 연속 증가하여 79.3%에 이르고, 소기업은 보증 건당 평균금액이 감소하여 보증금액 점유비가 하락하였으며, 중기업은 전월 수준을 유지함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6.04	2006.05	2006.06	전월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589	602	899	297
	비율	88.7	90.4	90.5	0.1
	금액	13,580	15,049	22,491	7,442
	비율	71.5	74.5	79.3	4.8
소기업	건수	55	53	78	25
	비율	8.3	7.9	7.9	0
	금액	3,297	4,190	4,248	58
	비율	17.3	20.8	15.0	-5.8
중기업	건수	20	11	16	5
	비율	3.0	1.7	1.6	-0.1
	금액	2,128	944	1,613	669
	비율	11.2	4.7	5.7	1.0
합계	건수	664	666	993	327
	비율	100	100	100	0
	금액	19,005	20,183	28,352	8,169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 수출 및 수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전국의 수출 전년동월 대비 증가

- 2006년 6월중 전국의 수출은 지난해 6월 대비 18.6% 증가한 28,111백만 불을 기록함
- 환율하락, 고유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석유제품(45.2%)이 높은 증가세를 주도한데 힘입어 원료 및 연료(42.9%)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전국의 수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2006년 6월중 전국의 수입은 지난해 6월 대비 21.9% 증가한 25,954백만 불을 기록함
- 지속적인 고유가로 원유, 가스 등 연료(42.9%)가 높은 증가세를 보인 원자재(23.9%)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서울의 수출 전년동월 대비 증가

- 2006년 6월중 서울의 수출은 지난해 6월 대비 8.8% 증가한 2,248백만 불을 기록함
- 성질별로 원자재(11.3%), 자본재(9.6%), 소비재(3.7%) 모두 증가하고, 국가별로 중국(8.6%), 미국(4.5%) 등은 증가한 반면, 일본(-18.3%), 홍콩(-5.6%) 등은 감소함

■ 서울의 수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2006년 6월중 서울의 수입은 지난해 6월 대비 14.7% 증가한 4,980백만 불을 기록함
- 성질별로 소비재(28.8%), 원자재(17.6%), 자본재(5.6%) 모두 증가하고, 국가별로 중국(29.2%), 일본(12.0%), 미국(3.2%) 등이 증가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5.06	2006.02	2006.03	2006.4	2006.5	2006.6	전년동월비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23,708	23,790	26,855	25,550	27,938	28,111	4,403	(173)	18.6	(0.6)
	수입	21,289	23,416	25,763	24,314	26,055	25,954	4,665	(-101)	21.9	(-0.4)
서울	수출	2,067	1,779	2,195	2,013	2,101	2,248	181	(147)	8.8	(7.0)
	수입	4,343	4,290	4,921	4,682	4,836	4,980	367	(144)	14.7	(3.0)

주: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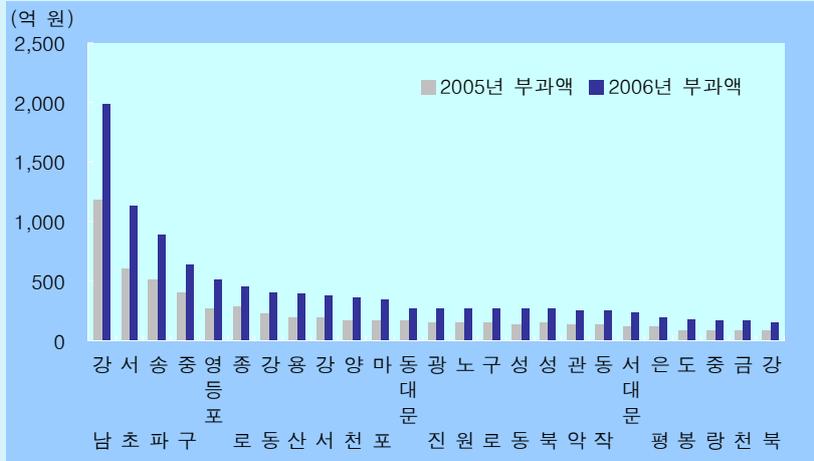
<Box> 서울시, 2006년 7월분 재산세 부과 현황

▶ 서울시, 7월분 재산세 310만건 8,241억 원 부과

-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과세되는 재산세중 7월분에 해당하는 310만건 8,241억 원을 부과함 (7월분 재산세는 종전대로 세부담 상한 150% 적용 부과하고 지방세법 개정후 9월분 부과시 인하분을 제외한 차액만 부과)
- 이번에 부과되는 7월분 재산세 최고액 납세자는 송파구 소재 호텔롯데로 1,674백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서초구 소재 센트럴시티(1,199백만 원), 강남구 소재 스타타워(1,128백만 원) 순임

▶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 강남구 등 20개 자치구에서 주택에 대하여 50~10% 까지의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시민들의 세부담이 812억 원 추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50%(강남), 40%(중구, 송파), 30%(양천, 서초), 25%(강동), 20%(용산, 동대문, 성북, 강북, 노원, 마포,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15%(종로), 10%(성동, 광진)
- 작년에는 중구 등 15개 자치구에서 40~20%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바 있음
- 금년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병기세목 포함 전체 세액 기준)를 자치구별로 구분하면 강남구가 1,98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138억 원, 송파구 899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53억 원, 금천구 171억 원, 중랑구 172억 원 순임



<그림> 자치구별 전년 대비 재산세(병기세목 포함 전체 세액 기준) 부과 현황

자료: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 건 · 설 · 경 · 기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및 건설수주액 감소

■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감소

- 2006년 5월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9,313천 m^2 로 이 중 주거용은 37.2%, 상업용은 25.1%, 공업용은 14.5%이며, 지난해 5월 대비 21.1% 감소함
- 이는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지난해 5월 대비 44.6% 감소한데 기인함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감소

- 2006년 5월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감소세에 이어 서울의 건축허가면적도 2005년 5월 18.9% 감소함
- 이는 지난해 5월에 비해 주거용 건축면적 중 특히 아파트 허가면적이 감소(306천 m^2 →151천 m^2)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06년 5월중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5월에 비해 34.5% 감소하였으며, 이 중 아파트는 50.6% 감소하였고 연립은 40.0% 증가하였으며, 단독은 변함이 없음
- 2006년 5월중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5월에 비해 10.3% 감소하였으며, 공업용 허가면적(65.9%)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함

〈표〉 건축물 허가면적

(단위: 천 m^2 , %)

구 분	2005.5	2006.1	2006.2	2006.3	2006.4	2006.5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국	11,867	8,622	7,439	10,787	9,247	9,313	-21.1 (0.7)	
서울	1,058	917	389	774	1,427	858	-18.9 (-39.9)	
주거용	소계	380	355	107	146	303	249	-34.5 (-17.8)
	단독	14	11	9	13	13	14	0.0 (7.7)
	연립	60	199	42	58	38	84	40.0 (121.1)
	아파트	306	142	55	74	252	151	-50.6 (-40.1)
비주거용	소계	679	561	283	628	1,124	609	-10.3 (-45.8)
	상업	305	409	182	347	878	304	-0.3 (-65.4)
	공업	91	11	6	5	8	151	65.9 (1787.5)
	문교/사회	254	128	88	203	122	149	-41.3 (22.1)
기타	28	12	7	74	116	5	-82.1 (-95.7)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 포함, 기타는 공업용, 공공용 포함,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서울시 건축과

■ 강서구, 성동구, 강동구 건축허가면적 높음

- 2006년 5월중 서울 건축허가면적은 강서구(175천㎡), 성동구(97천㎡), 강동구(90천㎡)에서 높게 나타나 다른 지역의 건설경기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 강북구(7천㎡), 도봉구(1천㎡)에서는 건축허가면적이 낮게 나타남
- 강서구, 성동구, 강동구 허가 면적 중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9%, 59.8%, 10.0%임

■ 5월중 서울의 건설수주액 증가

- 2006년 5월중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1조 3,303억 원으로, 지난해 5월 대비 전국이 17.9% 감소한 반면에 서울은 15.5% 증가함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의 18.8%에 비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p 증가함
- 재개발, 도로, 철도, 상하수도 부문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에서 19.6% 증가하였고, 신규 주택, 재건축, 사무실 부문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에서는 14.1%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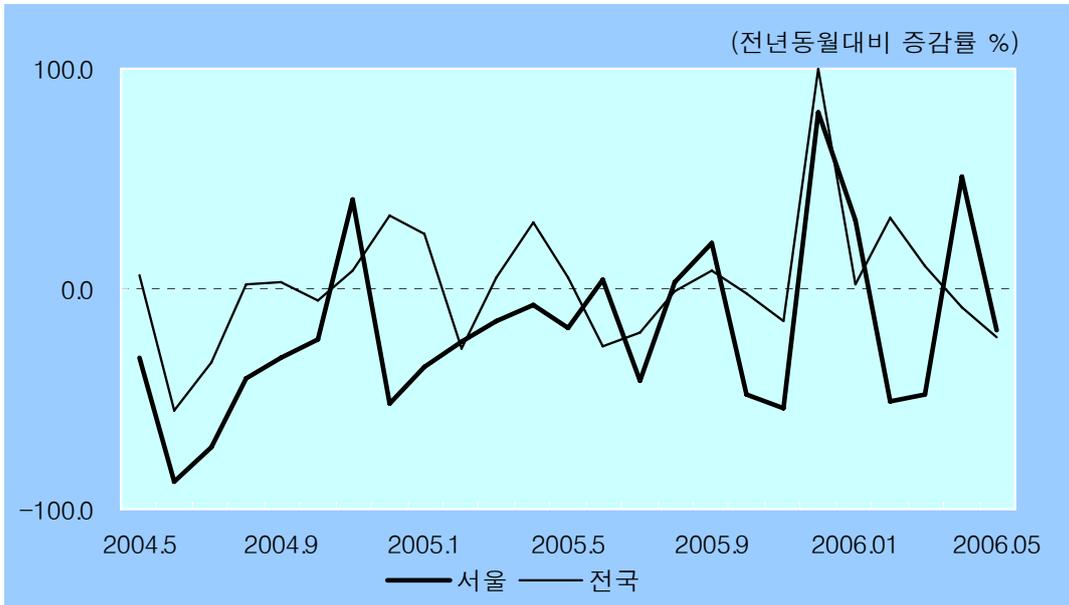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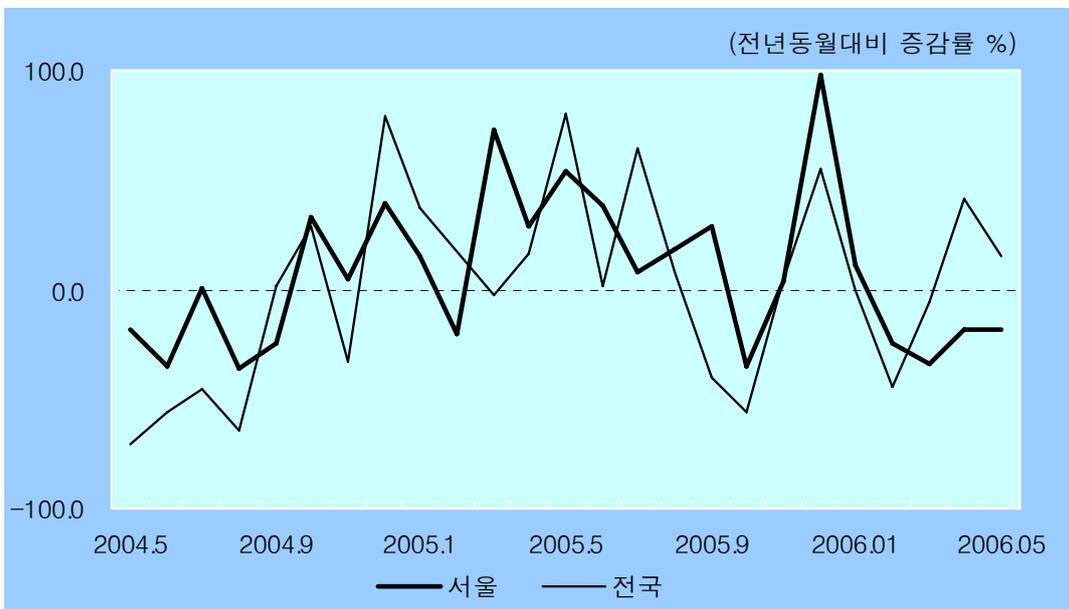
구 분		2005.5	2006.1	2006.02	2006.3	2006.4	2006.5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국		8,694.8	5,996.4	4,543.2	6,065.7	5,291.3	7,135.1	-17.9 (34.8)
서울		1,152.1	986.8	410.7	1,146.2	1,728.9	1,330.3	15.5 (-23.1)
발주 자별	공공	302.7	34.1	21.1	192.8	447.2	362.1	19.6 (-19.0)
	민간	848.7	840.6	389.6	945.7	1,280.4	968.1	14.1 (-24.4)
공종 별	건축	1,122.6	982.0	388.2	976.1	1,721.9	1,324.2	18.0 (-23.1)
	토목	12.5	4.6	20.1	168.8	5.3	5.9	-52.8 (11.3)

주: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 · 택 · 가 · 격 |

서울의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폭 둔화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둔화

- 2006년 6월중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5월 대비 0.5% 상승하여 상승폭이 0.5%p 둔화됨
- 정부의 각종 규제강화와 금리인상으로 인한 매수 심리의 위축과 계절적 비수기라는 요인에 의해 전국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분석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둔화

- 2006년 6월중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5월 대비 0.7% 상승하여 상승폭이 둔화됨
- 이러한 상승폭 둔화의 원인은 강남의 주택매매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 둔화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세부지역별로 강남은 0.8%, 강북은 0.6% 상승하여 지난 3개월간 가격상승 차의 평균인 1.5%p에 비해 6월은 0.2%p 하락함으로서 강남북간 가격상승의 차별화가 감소됨
-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그동안 상승을 주도하던 아파트의 가격상승폭(0.6%)이 크게 둔화된 반면 뉴타운 재개발 등의 영향으로 단독주택(0.7%)과 연립주택(0.9%)은 상승세를 지속함

■ 강북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소폭 감소

- 2006년 6월중 강북 지역별로 보면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용산구(3.1%)와 뉴타운 지역인 은평구(1.1%)를 제외하고는 다른 구에서는 1%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노원구(0.1%), 성북구(0.1%), 종로구(0.1%), 중랑구(0.1%)는 극히 미미한 상승률을 나타냄

■ 강남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둔화

- 2006년 6월중 강남 지역별로 보면 지난 5월에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던 양천구는 3%p 하락한 0.9%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강서구(1.9%), 동작구(1.7%), 서초구(0.9%), 양천구(0.9%) 모두 낮은 상승률을 나타냄
- 반면에 금천구(0.0%)는 지난 5월에 이어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강동구는 지난 5월에 비해 2.2%p 하락된 0.2%, 강남구는 2.0%p 하락된 0.3%로 강남구, 강동구의 상승률이 큰 폭으로 감소함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 2006년 6월중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5월 대비 0.6% 상승하여 상승폭이 큰 폭(1.4%p)으로 둔화됨
- 강남은 0.7%, 강북은 0.5%로 강남북간 증가율 차이는 지난 5월 2.0%p에서 0.2%p로 급격하게 줄어들음
- 지역별 매매가격 증가율을 살펴보면 강서구(2.3%), 동작구(2.2%)의 상승률이 2.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나, 지난 5월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각각 2.0%p, 1.7%p 둔화됨으로서 서울전체 상승폭 감소(1.4%p)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됨
- 지난 5월에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던 양천구, 서초구는 각각 0.6%, 0.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0.7%)보다 낮은 상승률을 나타냄
- 노원구, 도봉구, 강남구는 지난 5월과 동일한 매매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천구, 동대문구, 중랑구는 소폭(0.1%) 상승함

■ 서울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 2006년 6월중 서울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은 지난 5월 대비 0.9% 상승한 1,475만원으로 1.5%p 하락함
- 6월중 아파트 평당 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 이상인 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동구이며, 평당 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의 1/2 이하인 구는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금천구임
- 지난 5월 대비 종로구(3.9%), 강서구(2.8%), 관악구(2.4%), 용산구(2.0%)는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평균 증가율(0.9%)을 2배 이상 상회함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5.6	2006.2	2006.3	2006.4	2006.5	2006.6
전국	0.8	0.5	0.6	0.9	1.0	0.5
서울	1.4	0.8	1.2	1.5	1.5	0.7
아파트	2.2	1.1	1.8	2.3	2.0	0.6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0.3	0.3	0.5	0.7	0.7	0.6
강남	2.4	1.2	1.8	2.4	2.2	0.8

주: 연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5.06	2006.02	2006.3	2006.4	2006.5	2006.6
전국	0.2	0.4	0.7	0.6	0.4	0.1
서울	0.1	0.7	1.2	0.8	0.5	0.2
아파트	0.4	0.9	1.5	1.1	0.6	0.2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0.2	0.8	1.0	0.6	0.4	0.2
강남	0.4	1.0	1.4	1.0	0.6	0.2

주: 연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지난 5월 대비 0.1% 상승

- 2006년 6월중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지난 5월 대비 0.1% 상승하여 3월 이후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됨
-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수요 감소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안정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됨
-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0.0%)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연립주택(0.3%)이 선호되면서 가격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폭 둔화

- 2006년 6월중 서울 주택전세가격은 지난 5월 대비 0.2% 상승하여 전국과 마찬가지로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률이 감소되어 옴
- 2006년 6월 중 강남과 강북의 주택전세가격은 동일하게 0.2% 상승함
- 지난 4, 5월에 이어 강서구, 영등포구 등의 서남권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진 반면에 서초구, 송파구 등의 동남권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강남·강북 주택전세가격 증가율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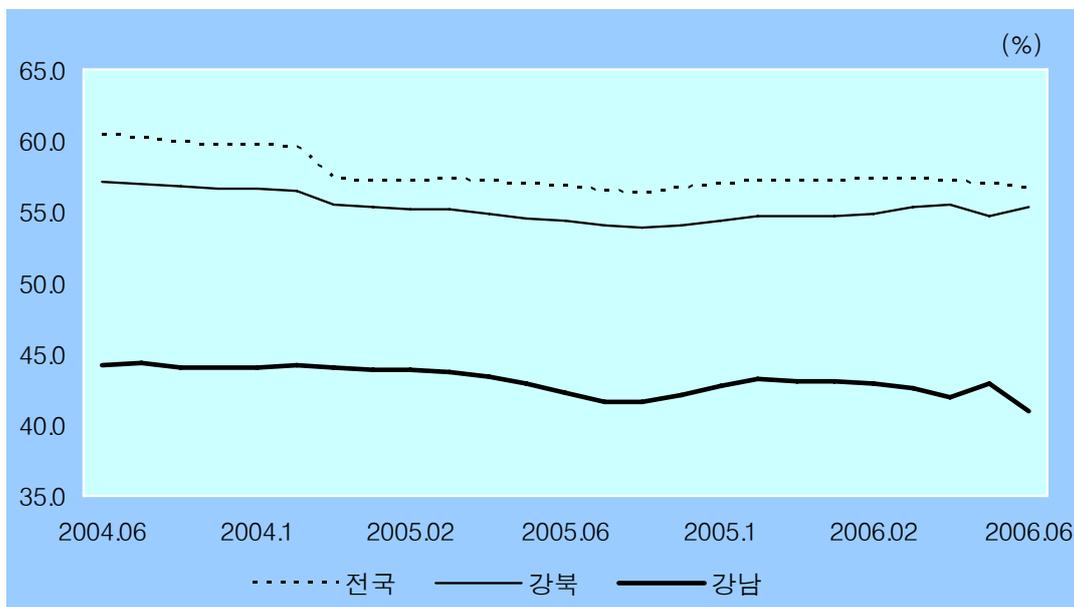
- 세부지역별로 강북의 주택 전세가격은 도봉구(0.9%), 중구(0.6%), 마포구(0.4%), 성동구(0.4%), 종로구(0.3%)에서 서울 평균 주택전세가격 상승률(0.2%)을 상회함
-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은평구는 서울 평균 주택전세가격 상승률(0.2%)보다 낮은 0.1%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강북구, 성북구는 보합세를 유지함
- 강남의 주택 전세 가격은 강서구(1.2%)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관악구(0.5%), 양천구(0.5%), 영등포구(0.5%), 구로구(0.3%)는 서울 평균 주택전세가격 상승률(0.2%)을 상회함
- 강남구는 0.1%의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송파구(-0.5%), 강동구(-0.1%), 서초구(-0.1%)는 하락세를 나타냄

■ 아파트 전세가격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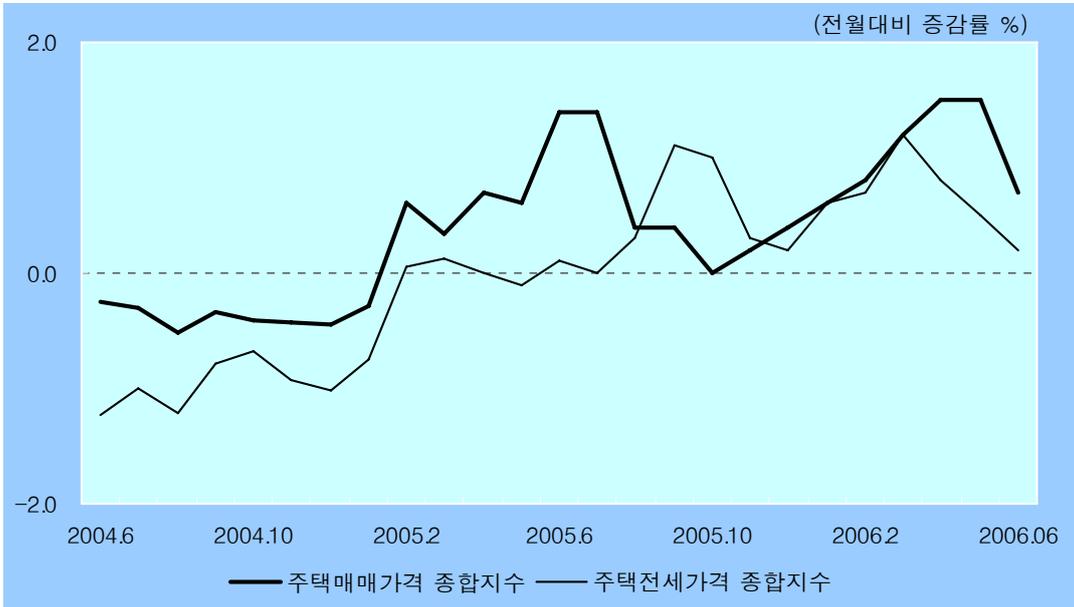
- 2006년 6월중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5월 대비 0.2% 상승하였으며 강북 아파트는 0.4%, 강남 아파트는 0.1% 상승하여 강북이 0.3%p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구별로는 중구(1.3%), 강서구(1.1%), 종로구(1.1%)가 1.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서초구(-0.7%), 송파구(-0.3%), 강남구(-0.2%), 구로구(-0.1%), 성북구(-0.1%)는 하락세를 나타냄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국에서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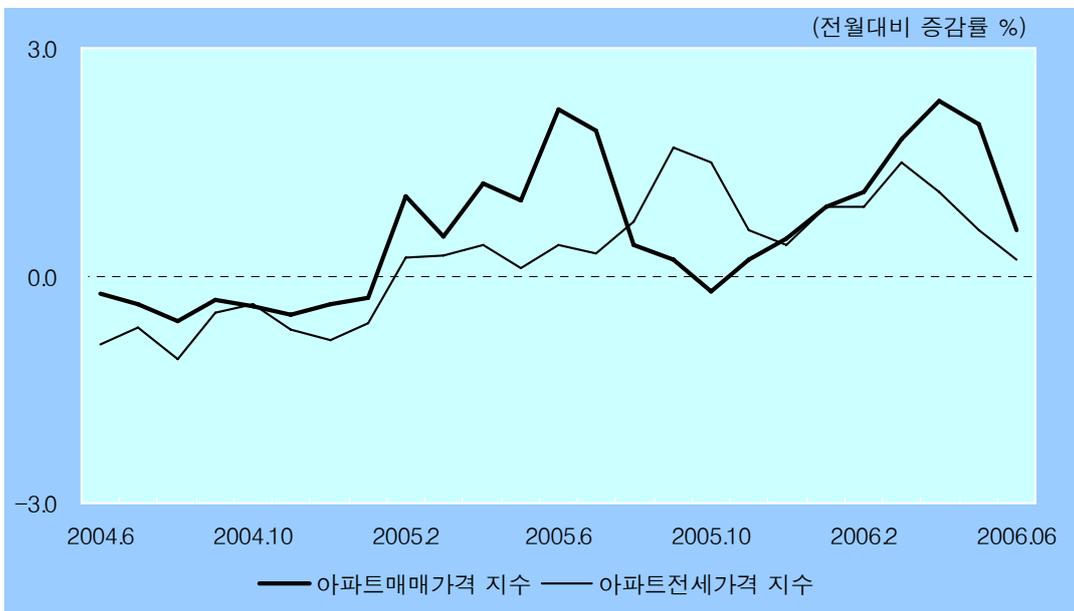
- 2006년 6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7.5%로 전국 평균 56.6%를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줌
-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은 55.3%, 강남은 40.9%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5월에 비해 강북은 동일하며 강남은 0.1%p 소폭 하락함
- 이는 강남이 강북에 비해 사용가치에 비해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